



The 14th

ASIAN TV DRAMA CONFERENCE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아시아 드라마, 더 넓은 세계로

Beyond Asia to the World

KOREAN

2019.9.4.(Wed.)~9.7.(Sat.)

Paradise City, Incheon, Korea



The 14th Asian
TV Drama Conference

Beyond Asia to the World



OVERVIEW





01

Asian TV Drama Conference OVERVIEW >>>>>

| 제14회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Asian TV Drama Conference

- 주 제 Beyond Asia to the World - 아시아 드라마, 더 넓은 세계로-
- 일 시 2019.9.4.(수) ~ 9.7.(토)
- 장 소 파라다이스시티 인천
- 주 최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Netflix (넷플릭스)
- 협 력 파라다이스시티, 인천관광공사

| 참가단체 Participants

- 한 국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17사),
KBS한국방송, MBC문화방송, SBS콘텐츠허브, JTBC 외
- 일 본 (사)일본방송작가협회, (사)전일본TV방송제작사연맹(21사),
AIE (지역기업연합회큐슈연계기구), 이치카와 신이치 각본상 재단
- 중 국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 베이징영상예술학회,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 화책그룹, 아이치이(북경/대만),
베이징원라이우문화미디어, ARE미디어, 망고TV, 청춘예찬미디어,
류바이미디어, PCCW 미디어 그룹(홍콩)
- 싱 가 폴 Mediacorp TV Singapore Pte Ltd
- 베 트 남 VTV TVAd
- 태 국 Broadcast Thai Television, 태국 텔레비전 드라마 대본 작가 연합
- 인도네시아 MNC Pictures
- 필 리 핀 GMA Network Inc.
- 미 국 Netflix, Rakuten VIKI
- 스 웨 덴 Eccho Rights



02

Asian TV Drama Conference

<<<<< PROGRAM

시간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09:00 ~ 09:30					참가자 등록	조식[RAKU]	
09:30 ~ 10:00					개회 및 참가자 소개	※한국참가자 체크아웃	
10:00 ~ 10:30					Session 1-1 한국 제작자 (30')		
10:30 ~ 11:00	참가자 도착 및 체크인				Session 1-2 일본 제작자 (30')		
11:00 ~ 11:30					Session 1-3 중국 제작자 (30')		
11:30 ~ 12:20					제작자세션 종합토론 (50')		
12:20 ~ 13:50					중식 (90') [PLAZA]		
13:50 ~ 14:00					파라다이스시티 Session (10')		
14:00 ~ 15:00	스페셜 스크리닝 [Sapphire]				특별 Session Netflix (14:00 ~ 15:10)		
15:00 ~ 15:30	드라마 상영회	개별 비즈니스 미팅 (B2B)	넷플릭스 상담회	작가 제작자 교류회	Coffee Break (15:10 ~ 15:30)	인천 드라마 촬영 후보지 팸투어	체크아웃 및 참가자 귀국
15:30 ~ 16:00					Session 2-1 중국 작가 (30')		
16:00 ~ 16:30	(15:00 ~ 17:30)	(15:00 ~ 17:30)	(14:00 ~ 18:00)	(15:00 ~ 17:30)	Session 2-2 일본 작가 (30')		
16:30 ~ 17:00	Meeting A	Meeting B+C	Meeting D/E	Meeting 로비	Session 2-3 한국 작가 (30')		
17:00 ~ 17:50	휴식				작가세션 종합토론 (50')		
17:50 ~ 18:20	오프닝 세리머니 / 키노트 스피치 (18:00~19:00)				전체총평 (30')		
18:20 ~ 19:00					휴식		
19:00 ~ 20:00	환영만찬						
20:00 ~ 21:00					환송만찬 [RUBIK]	※한국참가자 귀가	

03

Asian TV Drama Conference 9.4.(Wed.) >>>>>



부대행사 9월 4일(수) / 1층 컨벤션홀 일대

스페셜 스크리닝	드라마 상영회	개별비즈니스미팅 (B2B)	넷플릭스 상담회	작가 제작자 교류회
사파이어	미팅룸A	미팅룸B+C	미팅룸D/E	미팅룸 로비
14:00~15:00	15:00~17:30	15:00~17:30	14:00~18:00	15:00~17:30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스페셜 스크리닝 The Politician (더 폴리티션)	다양한 국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우수작의 해외 진출을 도모 ※ 총 4개국 8작품	신규 비즈니스 할로개척 및 국제 공동 제작 프로젝트의 실현 *희망자 사전 매칭	네트워킹 세션 *희망자 사전 매칭	각국 관계자와 교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통역을 제공

환영만찬 9월 4일(수) 18:00~21:00 / 1층 컨벤션홀 그랜드볼룸

오프닝 공연

개회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김용락 원장

축사 한국방송작가협회 김운경 이사장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송병준 회장

키노트 스피치 로버트 로이(Robert ROY) 넷플릭스 아태지역 콘텐츠 총괄부사장

건배사



04

Asian TV Drama

<<<<< 9.4.(Wed.)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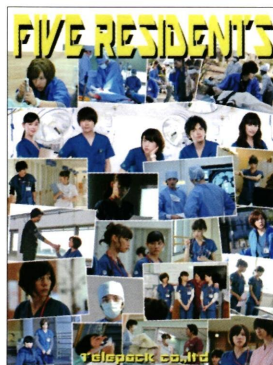
| 드라마 상영회 9월 4일(수) 15:00~17:30 / 1층 컨벤션홀 미팅룸A

일본



There is No Easy Work in the World

Cast Erina Mano,
Atsuko Asano



Five Residents

Cast Risa Naka,
Kento Hayashi,
Takahisa Masuda,
Aya Omasa



Kiss That Kills

Cast Kento Yamazaki



My Mom is Ballerina

Cast Yoshiko Tokoshima
and others

일본



I Don't Love You Yet

Cast Rika Adachi,
Jin Shirasu

루마니아



VLAD

Cast Adrian Nartea,
Olympia Melinte,
Diana S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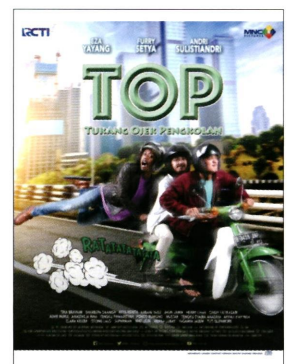
태국



Burning Jealousy

Cast Pakorn Chatborirak,
Warattaya Nilkuha,
Sririta Jensen,
Prama Imanotai

인도네시아



Tukang Ojeng Pengkolan

Cast Eza Yayang,
Furry Setya,
Andri Sulistiand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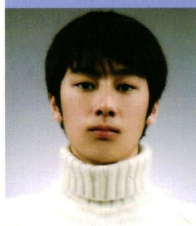


05

Asian TV Drama Conference 9.5.(Thur.) >>>>>

컨퍼런스 본회의 9월 5일(목) 09:30~18:20 / 1층 컨벤션홀 그랜드볼룸

- 주 제 Beyond Asia to the World -아시아 드라마, 더 넓은 세계로-
- 모더레이터 [제작자 세션] 도레미엔터테인먼트 김운호 본부장
[작가 세션] 한국방송작가협회 정형수 작가

세션		주제 및 발표자	
제작자 세션			
Asian Drama Industry Today – 아시아 드라마 산업의 오늘			
한국 제작자	프로듀서가 작가에게 : <킹덤> 사례를 중심으로		
		오승준 / 에이스토리 총괄 프로듀서 · 「킹덤」 (2019), 「킹덤 시즌2」 (2019), 「시그널」 (2016) 등 · 제52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등	
일본 제작자	일본 드라마 제작사의 현황, 그리고 나아가야 할 미래		
		누마타 미치즈구 / 전일본TV방송제작사연맹 이사 · 「레지던트」 (2012), 「탐정 사문지 스스무 시리즈」 (1999), 「도츠가와 경부 시리즈」 (1992), 「잠 못 이루는 밤을 세고」 (1992) · TV도쿄 스페셜드라마 ATP상 우수상 토카이TV 스페셜드라마 예술제우수상 / 민방연우수상	
중국 제작자	5G시대, 터닝포인트에 서다		
		유샤오강 /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 회장 · 「반공특전대지천랑」 (2019), 「반공특전대지엽영」 (2016), 「반공특전대」 (2014), 「건륭비사」 (2013), 「남국유가인」 (2011) 등 · 2019년 드라마 유럽원원TV페스티벌 우수 작품상 · 2017년 Golden Oak Award 우수드라마상 등	

중식 / 12:20 ~ 13:50 / Plaza



06

Asian TV Drama

<<<<< 9.5.(Thur.) Conference

세션	주제 및 발표자
특별 세션 (Netflix)	
특별 세션 1	Great Local Stories Transcend Borders - 국경을 초월하는 스토리텔링 · 김민영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디렉터 · 앤지 체이 「유성화원」 총괄 프로듀서 · 오누 구베나탐 「수호자」 총괄 프로듀서
특별 세션 2	Future of Entertainment - 엔터테인먼트의 미래 · 로버트 로이 넷플릭스 아태지역 콘텐츠 총괄 부사장 · 앤디 웨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디렉터 · 러셀 맥린 「블랙미러:밴더스내치」 프로듀서
작가 세션	

Stories that travel across and beyond Asia - 아시아를 넘는 스토리의 힘

인터넷 세대 - 온라인 특화, 시청자의 저령화, 형식의 다원화 추세 분석	
중국 작가	장연양 / 링허미디어 작가 · 「황금동」 (2019), 「항밀침침신여성」 (2018), 「노구문」 (2016), 「도요필기」 (2015), 「암흑자」 (2014) 등 · “골든 플라워상” 웹드라마 최우수 오리지널 웹드라마 수상 · “골든 갈매기상 아시아뉴미디어영화제” 최우수 창작 작가 수상 · “초심방상 제 10대 중국 청년 드라마작가상” 수상
해외로 진출한 나의 작품에 관하여	
일본 작가	고사와 료타 /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 드라마 「컨피던스 맨 JP」 (2018), 「리갈 하이」 (2012) 등 · 영화 「올웨이즈 - 3번가의 석양」, 「키사라기 미키짱」 등 · 일본 아카데미 어워드 최우수극본상, 무코다 구니코상 등
드라마 ‘SKY 캐슬’ 기획에서 집필까지	
한국 작가	유현미 /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 「SKY캐슬」 (2018), 「골든크로스」 (2014), 「각시탈」 (2012) 등 · 제45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극본상 · 제21회 한국방송작가상 드라마부분

환송만찬 / 19:00 ~ 21:00 / RUBIK

07

Asian TV Drama Conference

VENUE >>>>>



| 행사장 안내 파라다이스시티 인천 PARADISE CITY INCHEON

■ 주 소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186

■ 웹사이트 www.p-city.com

■ 연락처 +82-32-1833-8855

※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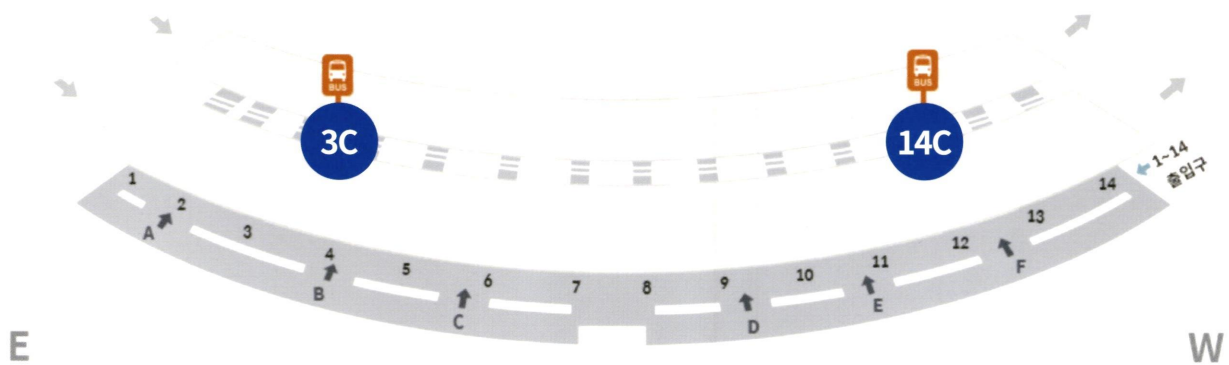
08

Asian TV Drama

<<<<< VENUE Conference

셔틀버스 정보

■ 버스 정류장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 운행일정 매일 / 20분 간격

출발장소	첫차	막차
파라다이스시티 지하 1층 출입구 앞 버스스테이션	05:00	23:00
인천공항 2터미널 1층 1A	05:25	23:25
인천공항 1터미널 1층 3C	05:40	23:40
인천공항 1터미널 1층 14C	05:45	23:45

■ 운행노선



※ 도로 사정에 따라 각 승차장소 및 셔틀버스 정차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 개 회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김용락입니다.



지난 2006년, 일본의 한 작가와 한국의 한 제작자가 만나
“아시아가 힘을 모아 할리우드를 뛰어넘는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모임의 작은 첫 발을 내딛은 이래로 벌써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할 만큼의 세월을 지나, 오늘은 아시아 뿐 아니라 미주, 유럽 등 10개 국가에서
200여 분이 넘는 창작자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다고 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꾸준히 성장해 온 것처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 덕에
아시아의 콘텐츠도 세계가 팔목할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우리네 인생 이야기가 저 멀리 유럽이나 미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인들의 공감을 얻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전세계 시청자들의 안방에 동시에 찾아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 드라마와 세계의 간극이 이토록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이런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드라마, 더 넓은 세계로’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작자 분들과 함께 변화를 이야기 할 것이고, 그에 대처하는 각 국의 아이디어를 토론할 것이며
동시에 작가 분들과 함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심장을 떨리게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대해 고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넷플릭스의 참여를 통해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연결하며 확장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분들의 지혜가 모여
아시아 드라마가 시작한 날갯짓이 세계를 향해 더욱 힘차게 펼쳐질 수 있는 길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14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의 개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4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김 용 락



The 14th Asian
TV Drama Conference

Beyond Asia to the World



REFERENCE





Beyond Asia to the World

ASIAN TV DRAMA CONFERENCE

Producers Session 1 : 한국 제작자

오승준

프로듀서가 작가에게
- <킹덤> 사례를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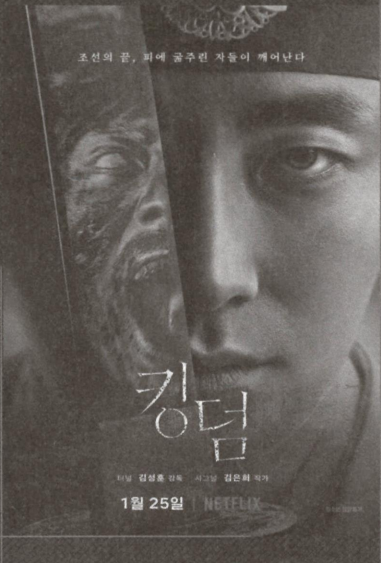
프로듀서가 작가에게
- <킹덤> 사례를 중심으로 -



총괄 프로듀서 오승준
2019. 9. 5.

15

2



조선의 꿈, 황에 공주인 자들이 깨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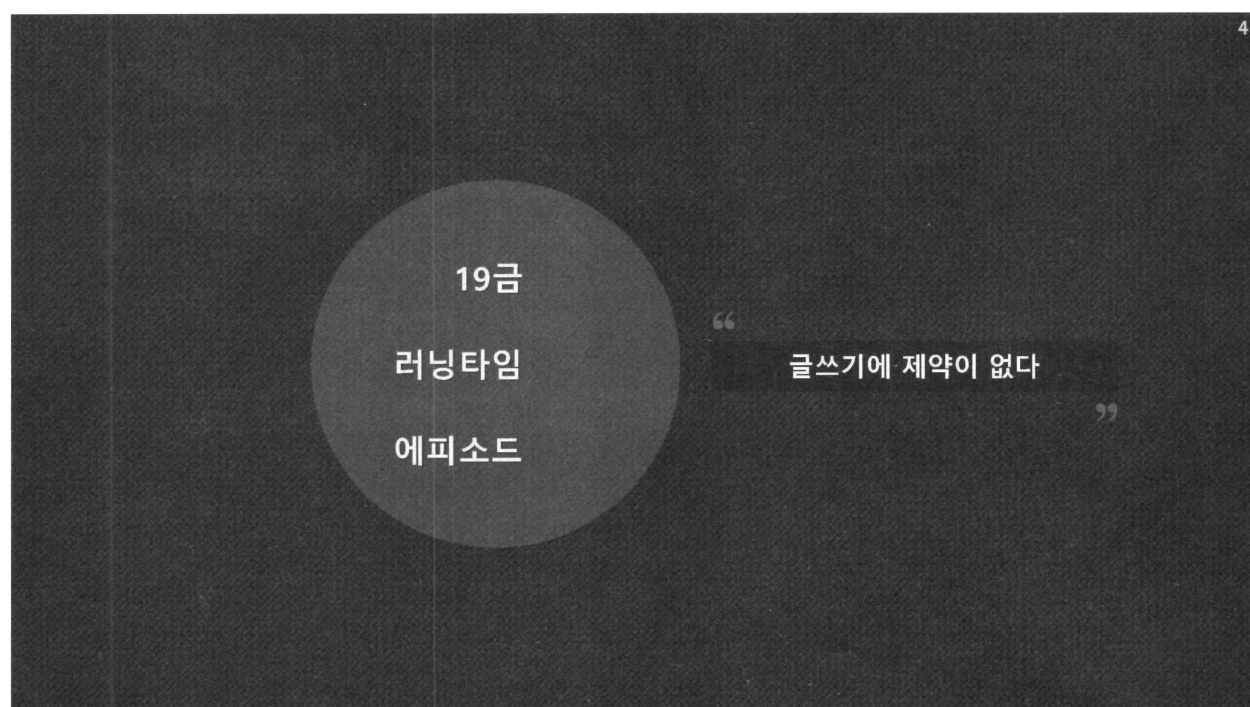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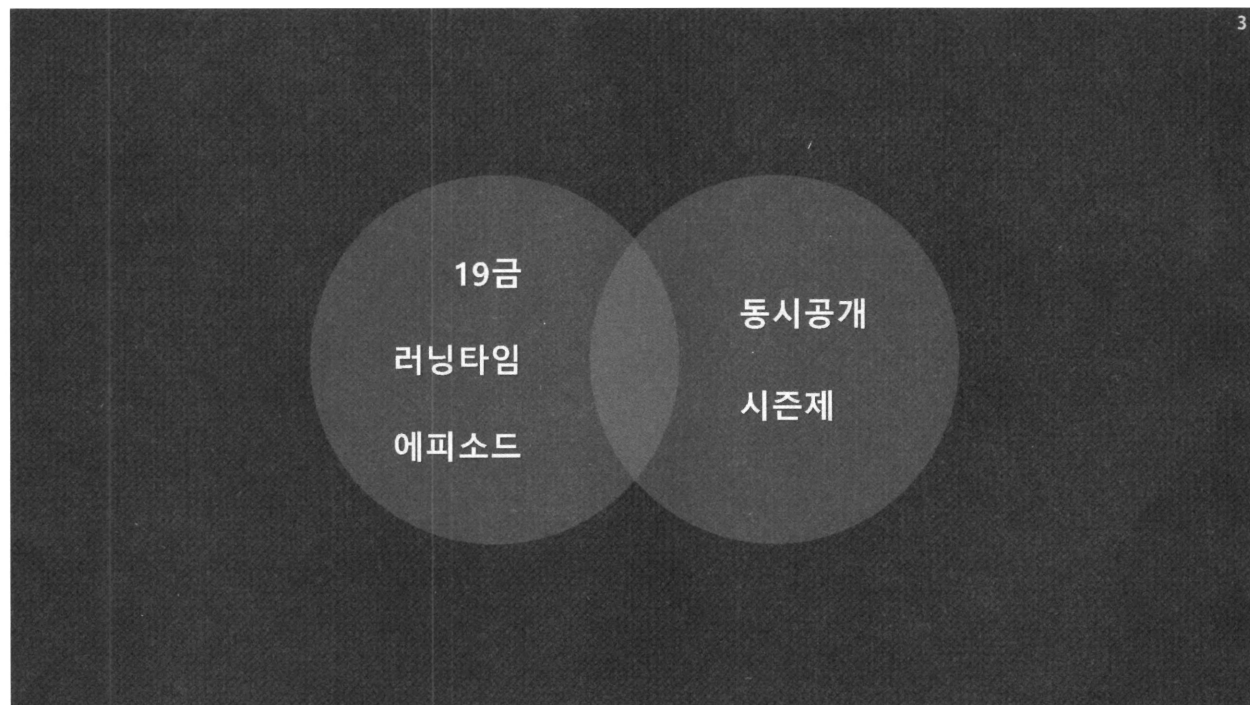
킹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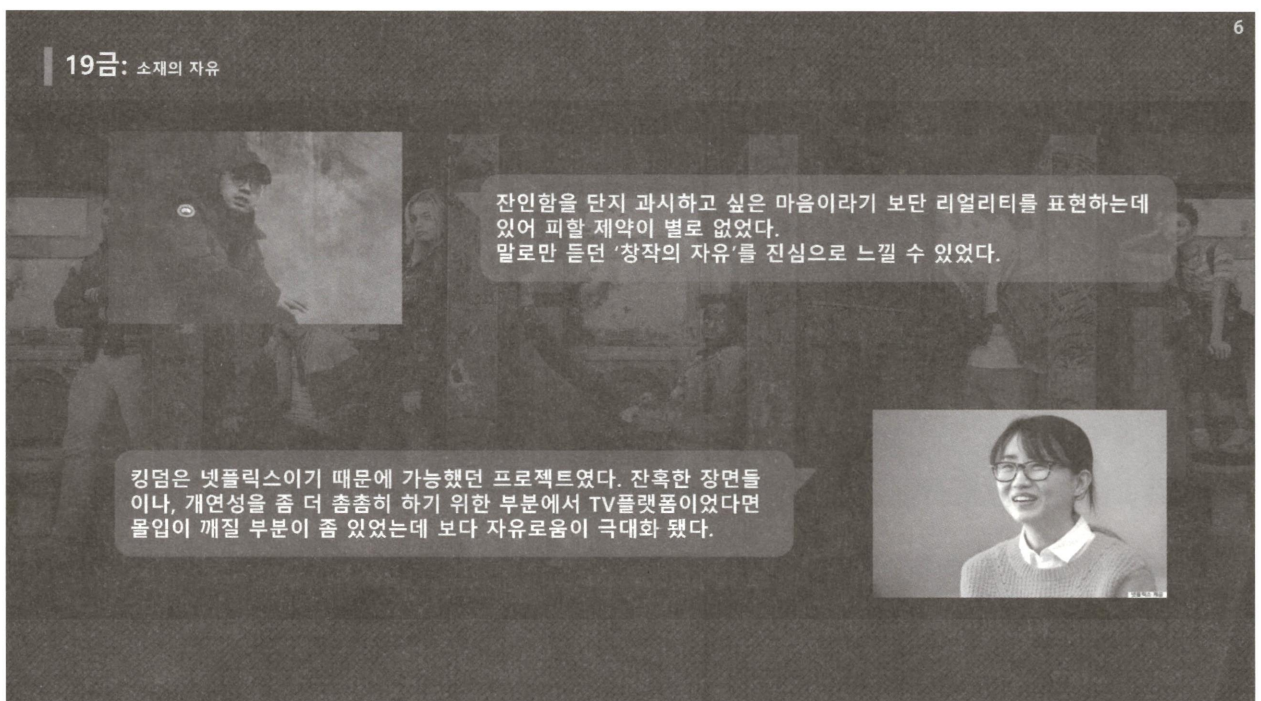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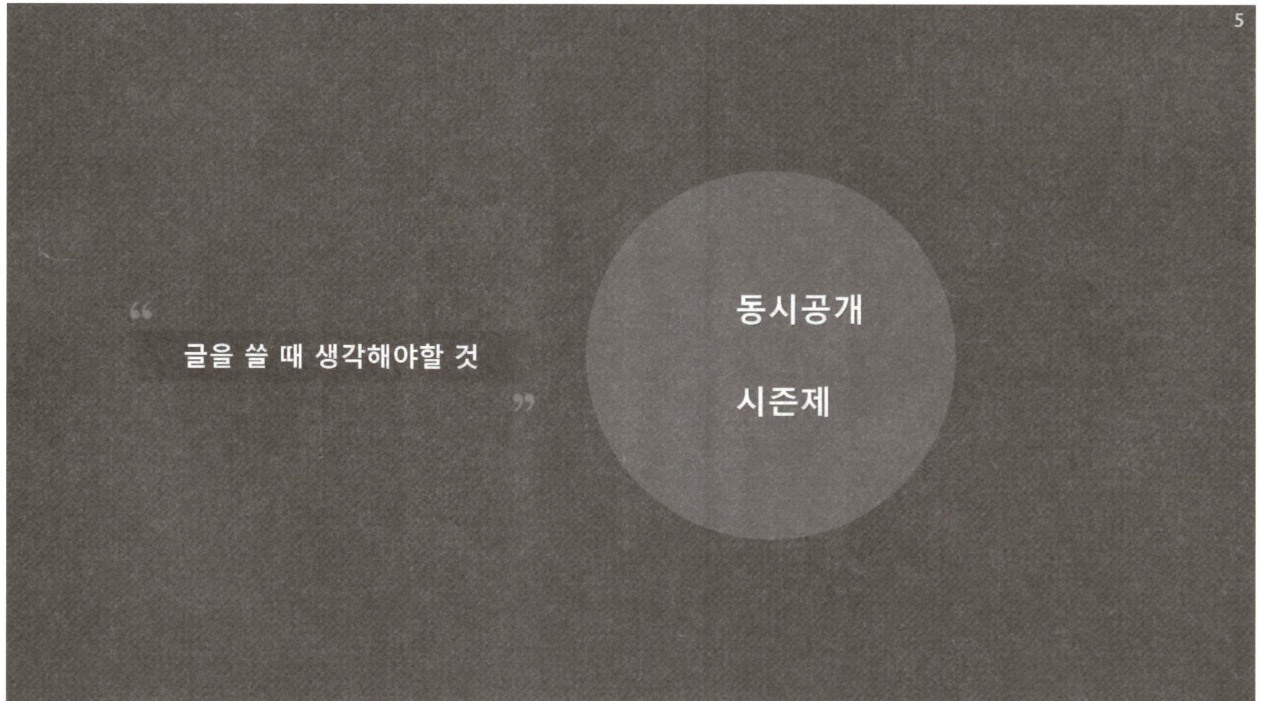
최남 김성훈 감독 | 서기남 김은혜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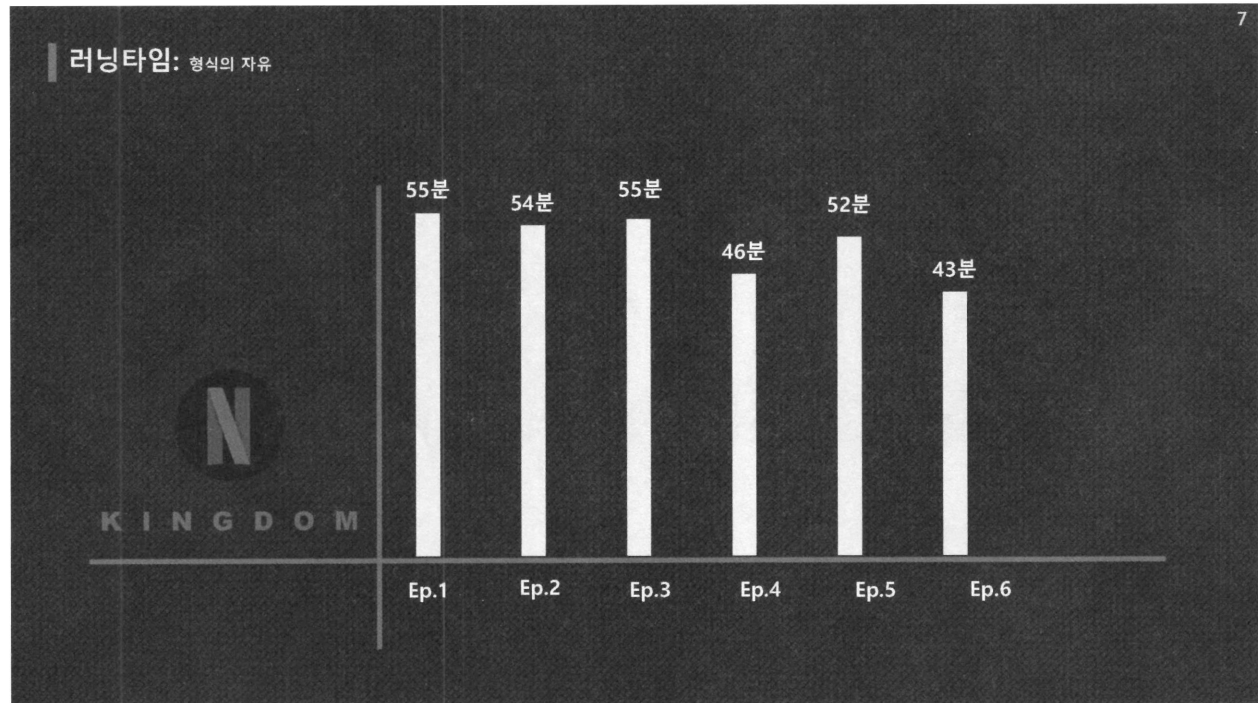
1월 25일 | NETFLIX

KINGDOM Season 1

플랫폼/유형	제작사
A NETFLIX ORIGINAL SERIES	A STORY
감독 - 터널, 끝까지 간다	작가 - 시그널, 유령, 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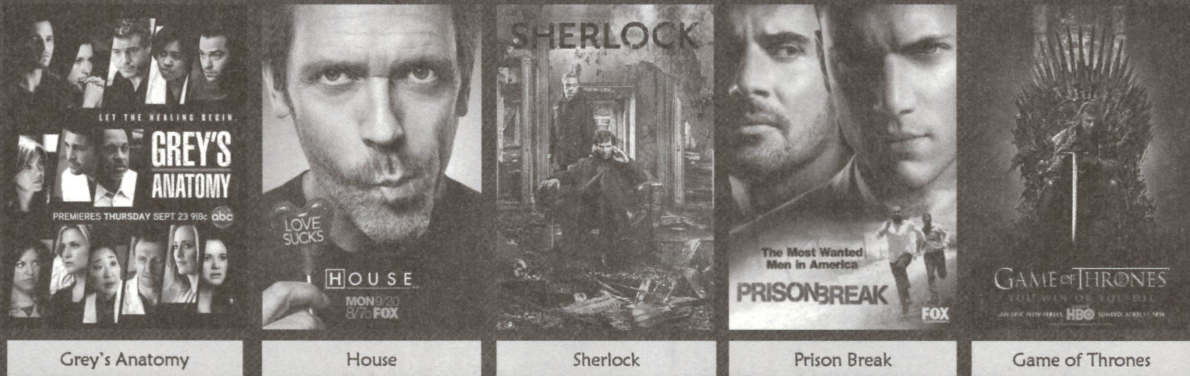
전세계 동시공개: 시공간 초월

나르코스
넷플릭스 첫 외국어 제작 시리즈

킹덤
넷플릭스 아시아 첫 오리지널 제작 시리즈
27개 언어 자막, 11개 언어 더빙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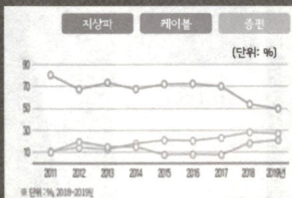
다크
독일 제작사를 통해 만든 미스터리 드라마
전체 시청 중 90% 이상이 비독일 지역

불멸의 캐릭터



다양한 창구를 통한 새로운 기회

채널별 방영편수 기준 점유율 전망



3대 메이저 OTT 서비스			
서비스	가격	가입자 수	제공 콘텐츠
NETFLIX	\$9~16	1억 5,100만	넷플릭스 제작 오리지널 콘텐츠, 라이선스 드라마 등
Amazon Prime	\$13	프라임 가입자 1억 4,700만	아마존 스튜디오 제작 오리지널 시리즈, TV 방송 프로그램 (BBC, PBS 등)
Hulu	\$6~12	2,510만	독점 오리지널 콘텐츠, 디즈니, 폭스, NBC 방영 TV 시리즈
유료 프로그램 채널 사업자 (CBS All Access 제외) OTT 서비스			
HBO NOW	\$15	710만	HBO 제작 독점 콘텐츠, 워너브라더스, 폭스, 유니버설
Showtime	\$11	390만	Showtime 제작 독점 콘텐츠, 영화
CBS All Access	\$6~10	380만	CBS 방송 드라마, 쇼프로그램
Starz	\$9	300만	유료 방송 Starz 제작 독점 콘텐츠, 영화 (소니, 디즈니)
신규 론칭 예정 OTT 서비스			
Disney Plus	\$7	미정	디즈니 제작 오리지널 콘텐츠 영화 (디즈니, 21세기 폭스)
Apple Plus	미정	미정	애플 제작 독점 콘텐츠, 라이선스 영화, 방송 프로그램
NBC Universal	미정	미정	NBC 방송 프로그램, 영화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Issue Monitor 제 109호

20

11

어떤 작품이 필요한가?

자유로운 형식의 새로운 이야기

BLACK PEARL

캐릭터가 강하고 매력적인 이야기

THE K2

시즌제가 가능한 이야기

GREY'S ANATOMY

원작이 탄탄한 이야기

THE WINDS OF CHANGE

12

어떤 제작사가 필요한가?

시그널 (2016년)  tvN 전세계 리메이크, 시즌제 드라마, 일본 영화 제작 확정 	Shall we fall in Love? (2017년)  Tencent 腾讯 국내 최초 텐센트 오리지널 	백일의 낭군님 (2018년)  tvN 중국 리메이크 일본 NHK 방영 	추리의 여왕 시즌 1&2  KBS2 국내 시즌제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 (2018년)  KBS2 미국 MRC Studio 리메이크 	킹덤 (2019년)  NETFLIX 국내 최초 넷플릭스 오리지널 
---	---	--	--	--	---



감사합니다

Producers Session 2 : 일본 제작자

누마타 미치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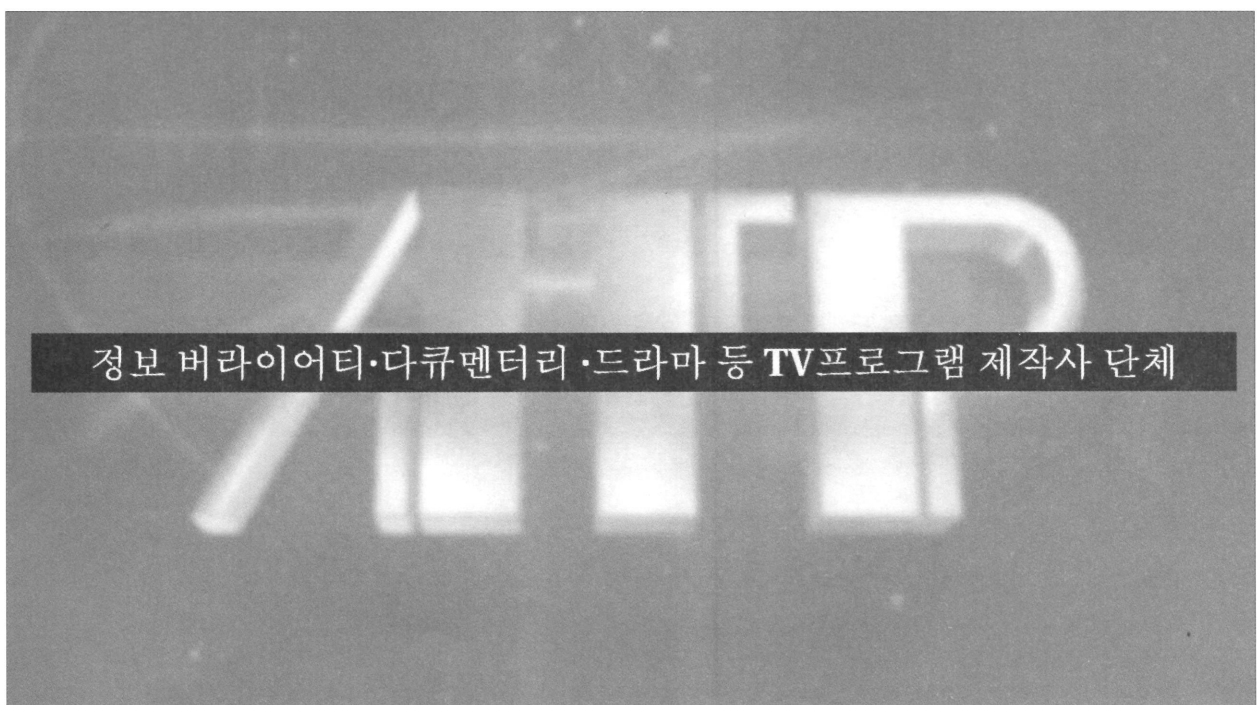
일본 드라마 제작사의 현황,
그리고 나아가야 할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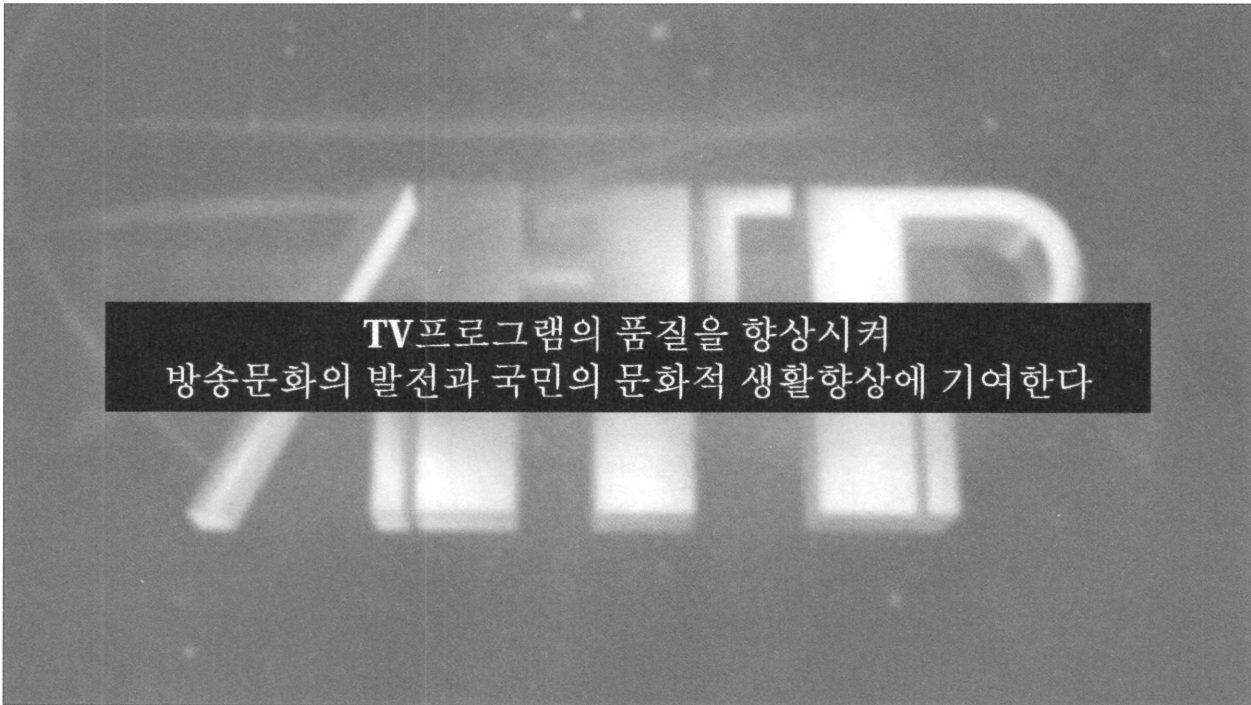
일본 드라마 제작사의 현황, 그리고 나아가야 할 미래

누마타 미치쓰구 / MICHITSUGU NUMATA
주식회사 텔레팩 이사 프로듀서
ATP(전일본TV프로그램제작사연맹)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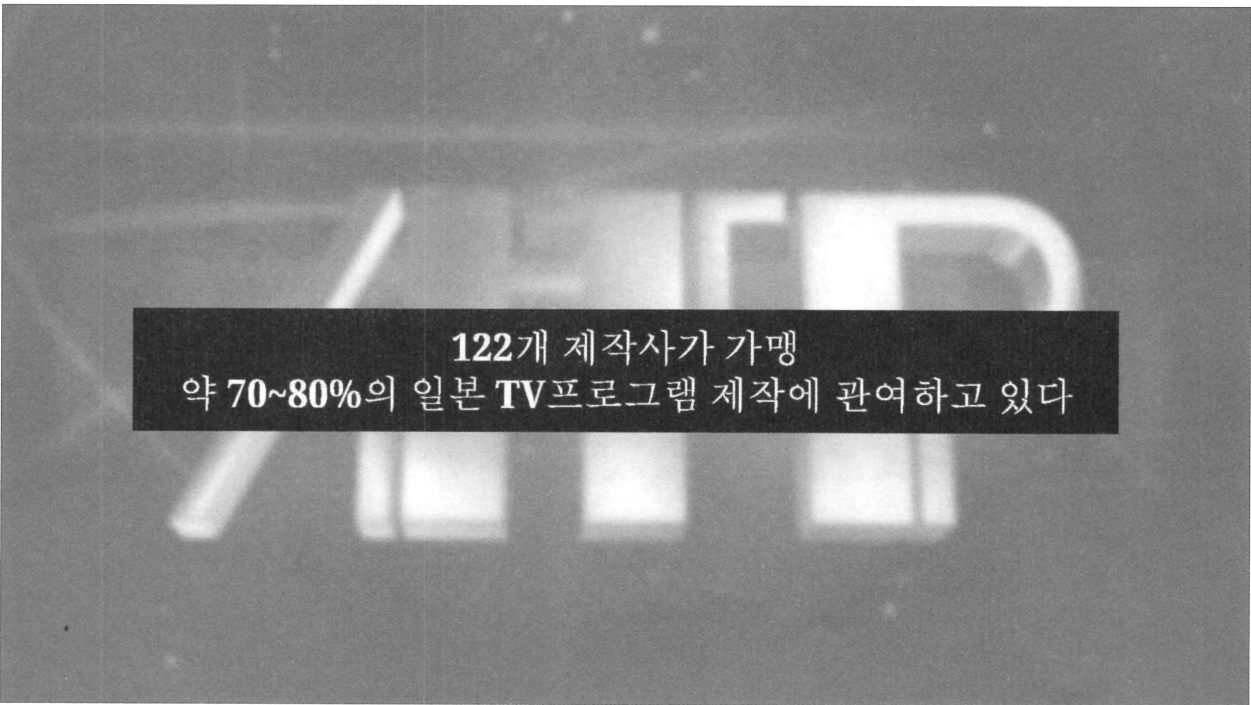
텔레팩
A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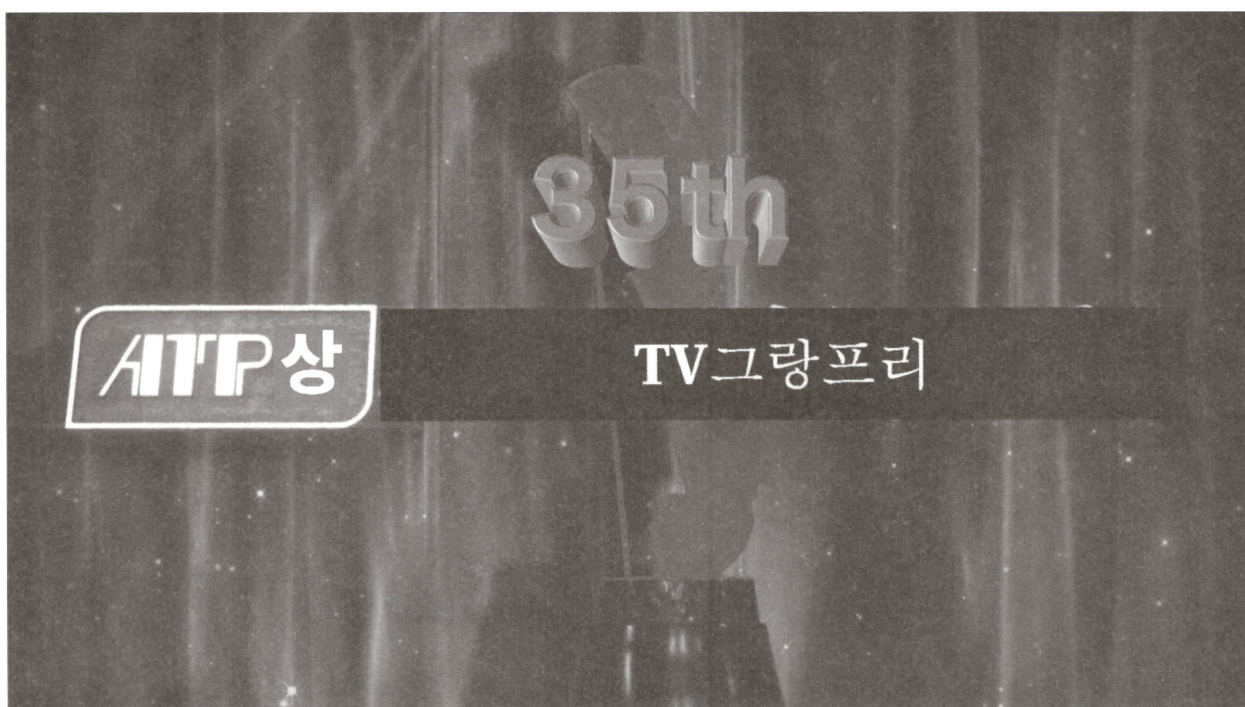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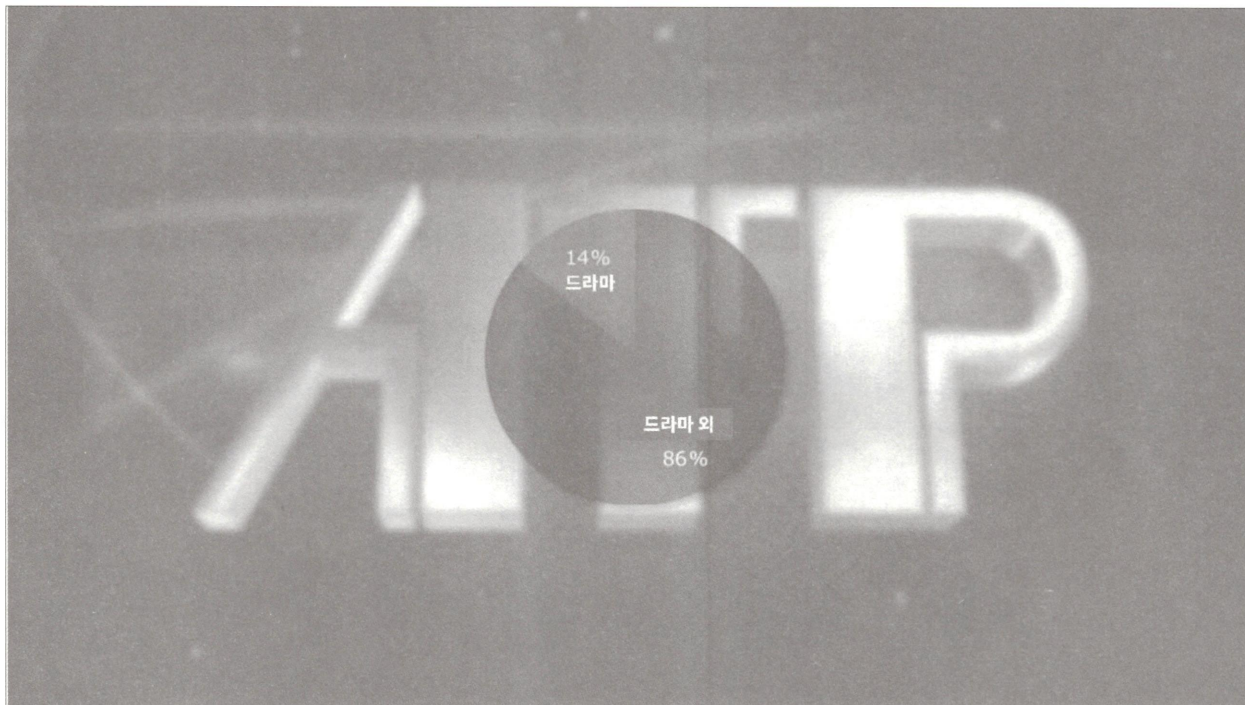




**TV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켜
방송문화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생활향상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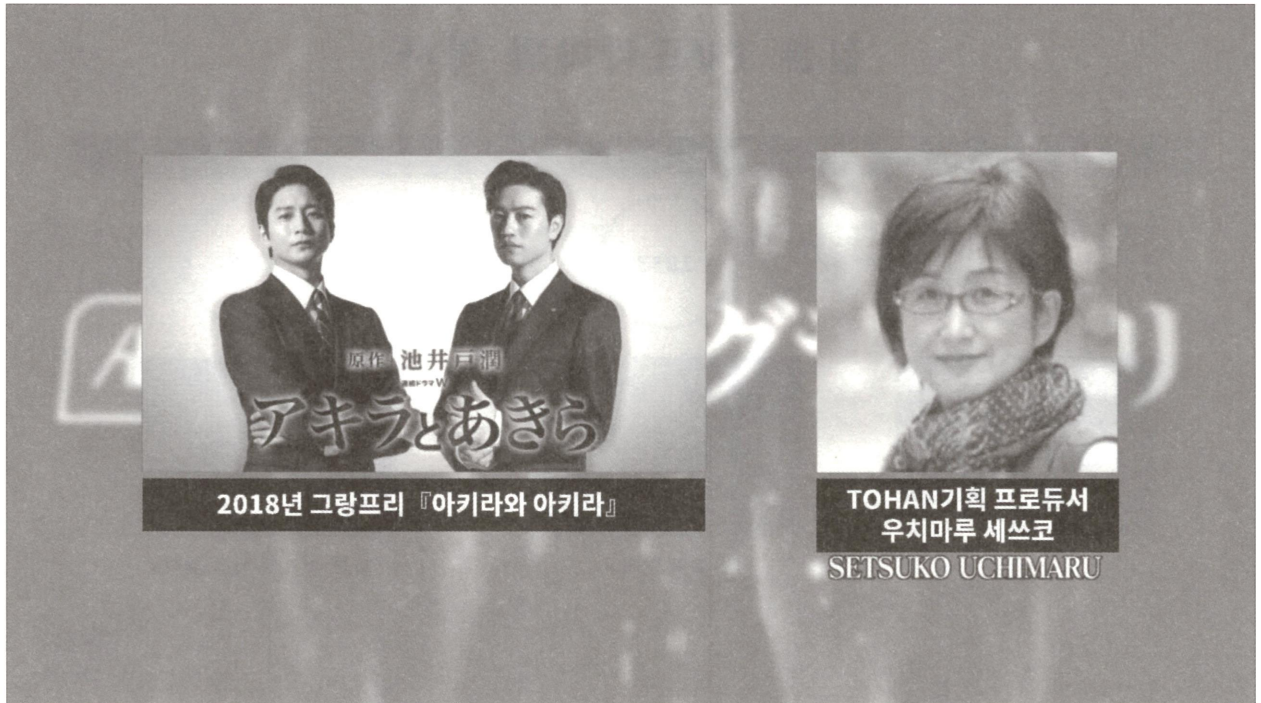
**122개 제작사가 가맹
약 70~80%의 일본 TV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





제작자가 선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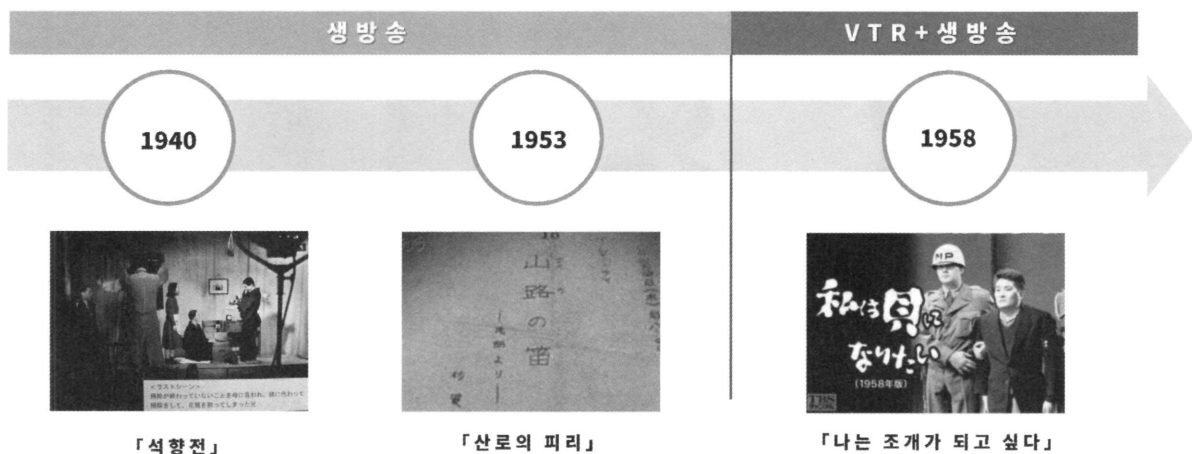




일본 TV의 역사



일본 TV드라마의 역사



ATP
텔레팩

TV방송국 제작에서 제작사로



이시카와 하지메

사진 왼쪽

웹사이트 아카이브 : 나의 텔레비전 연보
<https://jissoji.wixsite.com/jissoji-lab/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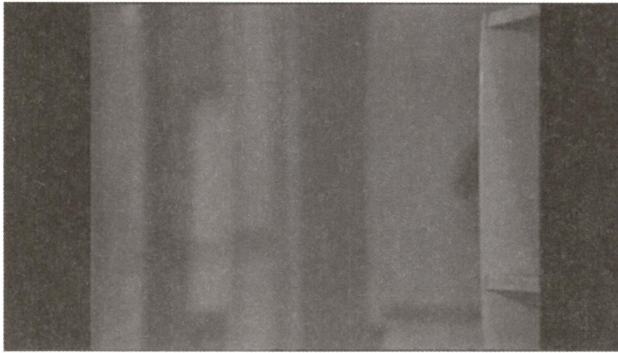
NHK 제작 개시

TBS 제작 개시

텔레팩

ATP
텔레팩

텔레팩의 드라마



이시이 후쿠코 「고맙습니다」

민영방송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

56.3 %

ATP
텔레팩

29

그후, 수많은 드라마 제작사가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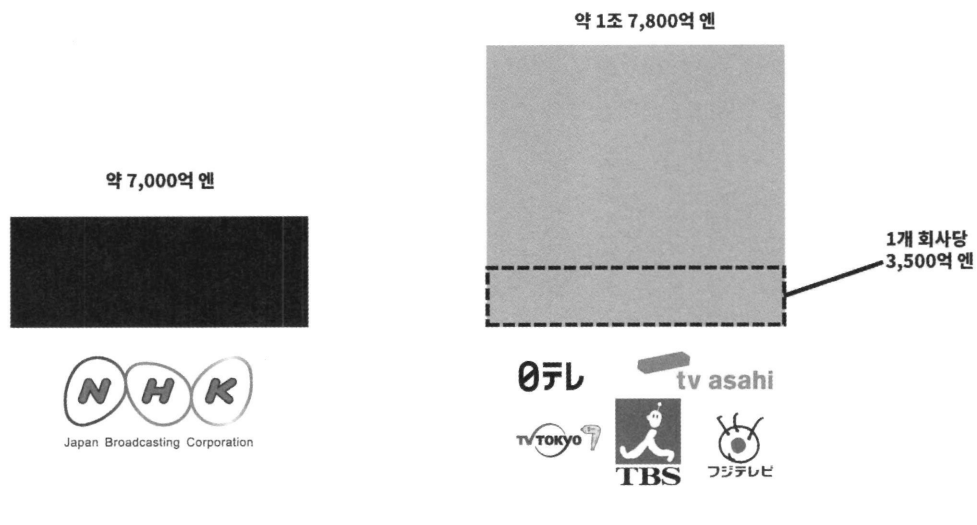


「붉은 시리즈」 「스쿨 워즈」 다이에이TV,
「길 위의 화가」 TOHAN기획, 「미토코몬」 C.A.L,
「아들을 동반한 검객」 유니온영화,
「사랑의 폭풍」 이즈미방송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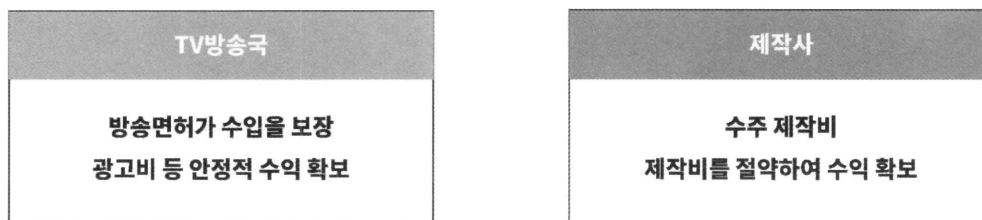


ATP
텔레팩

일본 TV산업 시장 규모



일본 TV방송국과 제작사의 수익 구조



• TV방송국 제작 드라마의 제작비가 더 많음 → TV방송국 2 : 제작사 1

가격 대비 품질(Cost Performance)이 좋은 제작사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 MMJ,
 「W현경의 비극」 HORIPRO,
 「너는 펫」 AOI Pro.,
 「닥터 X」 THE WORKS,
 「이 거리의 생명에」 TV Asahi Productions,
 「최고의 전차가 달렸다」 TV MAN UNION



ATP
 텔레팩

31

수익 구조의 붕괴로 드러난 근본적인 문제점

제작비 감소

올림픽 개최 이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

인건비 증가

업무 방식 개혁
 제작기간이 길어져
 더욱 증가

근본적 문제점

IP가 (절반밖에) 없는
 비즈니스를 하려 하지 않았음

ATP
 텔레팩

제작사가 지향하는 3가지 미래

1. TV방송국으로부터의 자립

한국 및 중국, 미국의 제작사와 스튜디오처럼 자립해야 한다.

2. 글로벌한 작품 제작

세계에 유통되는 상품으로 드라마를 제작해야 한다.

3. 세계시장 개척

세계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ATP
텔레팩

제작사가 견뎌야 하는 현실

국내용 드라마만 제작



국내시청률을 중시하는 TV방송국



드라마의 갈라파고스화 현상

ATP
텔레팩

텔레팩의 글로벌시장 진출 시도

한국의 제작사와 새로운 형태의 공동제작을 포함한 비즈니스 개발

한국 제작사와의 새로운 형태의 공동제작을 통해 2020년부터 2021년을 목표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한다.

출자를 포함하여 자립한 제작사가 되고자 한다.

그 결과를 ATP의 이사로서 드라마제작사 회원들에게 공유하여 일본의 드라마 제작을 산업화해 나간다.

ATP
텔레팩

33

일본 드라마의 잠재력(potential) 재능 있는 젊은 제작자들

가와하라 요 / 텔레팩

NETFLIX 오리지널
「굿모닝 콜」
프로듀서 · 감독

스즈키 아키노 / AX-ON

오리지널 각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프로듀서

나카오 사치요 / as birds corp.

ATP신인상 수상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프로듀서



ATP
텔레팩



마무리

ATP
텔레팩

34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谢谢大家

Thank you for listening so patien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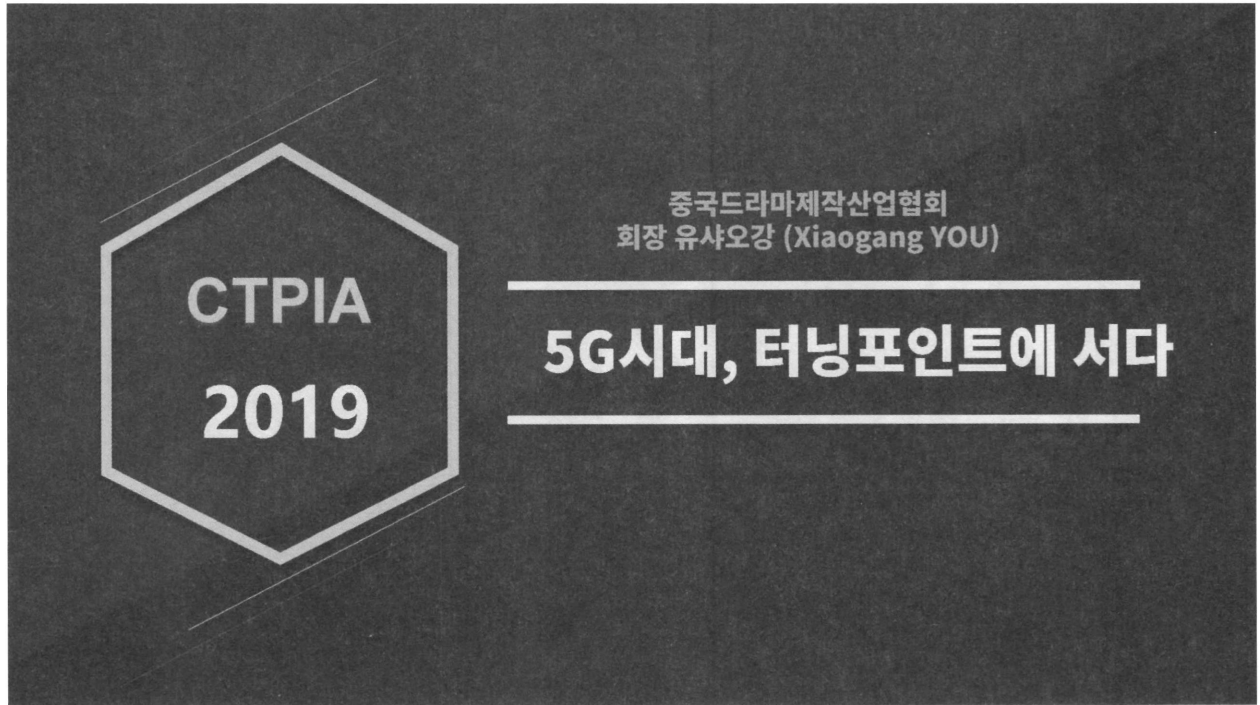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ATP
텔레팩

Producers Session 3: 중국 제작자

유샤오강

5G시대, 터닝포인트에 서다



35

목차 CONTENTS

- 01 5G가 가져온 미디어와 콘텐츠의 변화
- 02 긴 영상은 짧게, 짧은 영상은 길게
- 03 플랫폼 융합, 운영 및 제작의 변화
- 04 리딩형 오프닝과 대형 플랫폼 온라인 분할 결제

I . 5G가 가져온 미디어와 콘텐츠의 변화



5G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중국 영상 산업도 터닝포인트에 서 있다. 콘텐츠 제작, 미디어의 혁신과 변화는 바로 미래 영상 산업 발전의 혁명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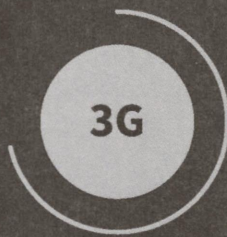
- 유사오강 (Xiaogang YOU)

01 미디어 혁명과 융합의 터닝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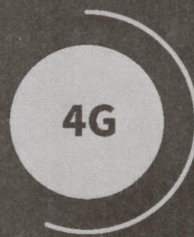
- ▲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TV 드라마가 역사 문명 스토리의 문화적 가치를 담아낸다.
- ▲ TV 드라마는 소설을 기초로 제작되고, 형식은 고서평화(鼓書平話)로, 연출은 연극의 형식을 따라 민족의 역사와 미풍양속을 그려낸다.
- ▲ TV 드라마 예술 주제는 주로 정의로움과 카오스 그리고 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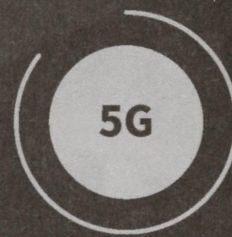
02 5G의 속도와 용량이 가져온 새로운 수요



타오바오



위챗



마이크로 영상
(short form video)
(검색 소비와 정확한 마케팅)

5G

1. 미디어 혁명과 콘텐츠 혁명
2. TV드라마 산업의 구조적 변화, 산업의 다원화 발전
3. 콘텐츠 조건: 길이, 유닛, 미디어의 융합, 마이크로 영상, 1인미디어의 다원화
4. 통신 속도와 콘텐츠 통합의 품질과 양의 변화 (품질의 변화가 핵심)

II. 긴 영상은 짧게, 짧은 영상은 길게

1. 장편 시청각 서사 작품의 리딩(leading)과 구독
2. 헐리우드 5~8분 section제 적용
 - (1) narrative rhythm 약 5~8분
 - (2) TV드라마에서 웹드라마까지 narrative rhythm의 변화
3. 마이크로 영상 제작의 장시간화 되는 3대 원인
 - (1) 영상 제작자의 자발적 의지
 - (2) 스타 찾기, 인플루언서 섭외를 통한 시청률 제고를 위한 제작회사의 의도
 - (3) MCN의 상업화

4. 장편 시청각 서사 작품 전략과 창작의 변화



- (1) 장편 시청각 서사 작품의
선도적인 홍보
- (2) 방송 중 선도적인 홍보
- (3) 방송 후 반복형 홍보
- (4) 미래 TV 드라마 스토리 구성 - 5분
- (5) 마이크로 영상 5~8분 스토리 구간이 가장 적합

III. 미디어의 대응합

기존 라인형 프로그램 배열→

모바일 검색
미리보기

마이크로 영상의
폭발적 성장

←분할된 시간

TV방송국 기존 온라인사이트→
APP 리딩 유도
유료 클릭
분할 결제

콘텐츠
제공업자-
플랫폼 간의
활발한 협력

마이크로
영상의
골든 타임

←30초-8분

콘텐츠를 최우선으로

독특한 서사 방식

독특하게

새롭게

파격적인 형식의
변화와 새로운 시각

충실
하게

진정성과 내실화

다원화된 표현

다양하게

짧게

긴 동영상은 짧게,
짧은 동영상은 길게

5G가 촉진하는 영상산업의 신시대에는 창작 인재가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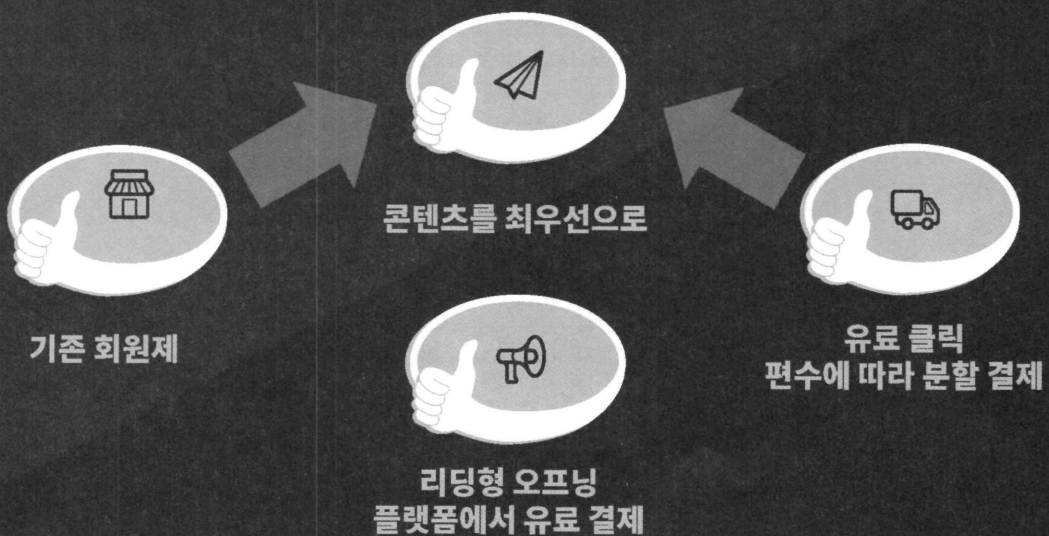
중국 TV 드라마 제작 산업 협회는 기존 관람형 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사제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전수를 위해 러닝 센터를 설립하였다. 3개월 동안의 숙성 교육으로 연기학과 3년의 커리큘럼, 짧은 동영상 제작 학교, 프로그램 제작 실험 센터, 팀교육을 수료한다.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단시빈내용공작위원회 (약칭 '단공위')
중국단시빈제작학원 설립

IV. 리딩형 오프닝과 대형 플랫폼의 분할 결제 방식





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
China Television Drama Production Industry Association

감사합니다

| Writers Session 1 : 중국 작가

장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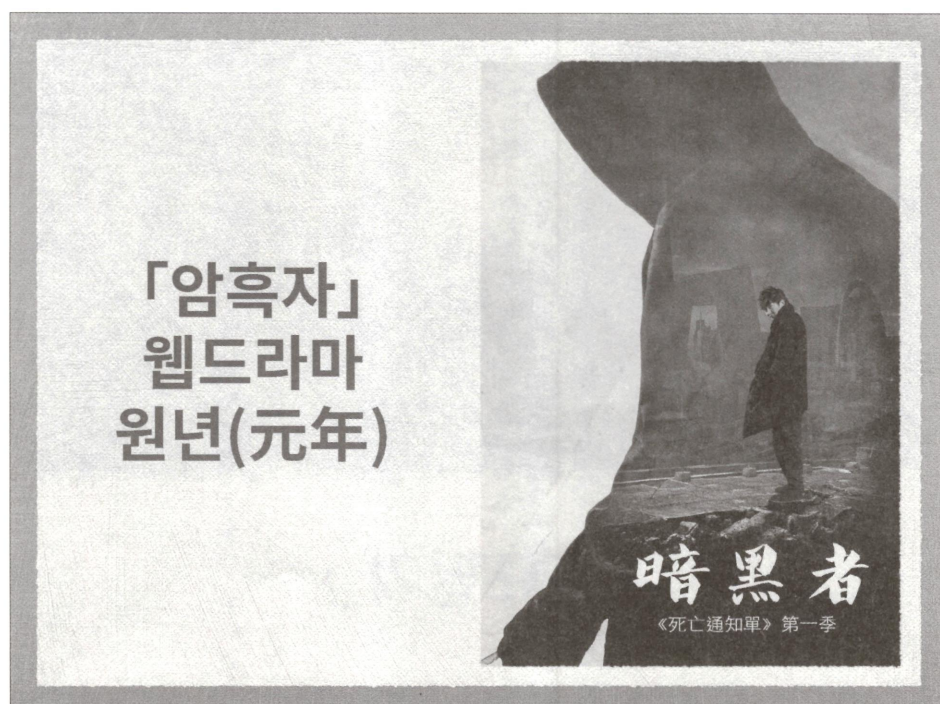
인터넷 세대

- 온라인 특화, 시청자의 저령화, 형식의 다원화 추세 분석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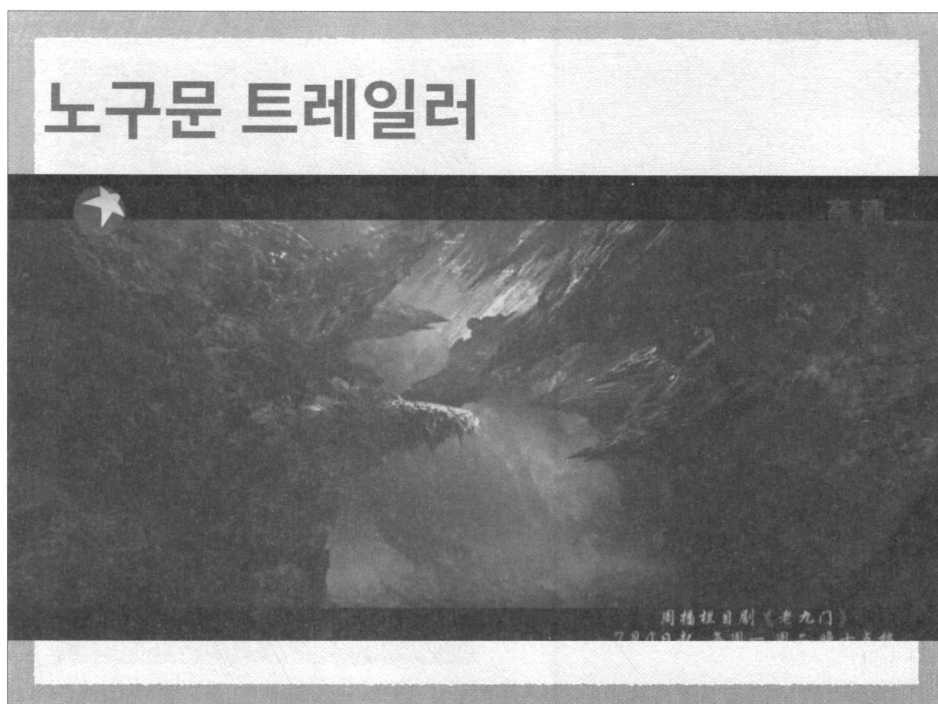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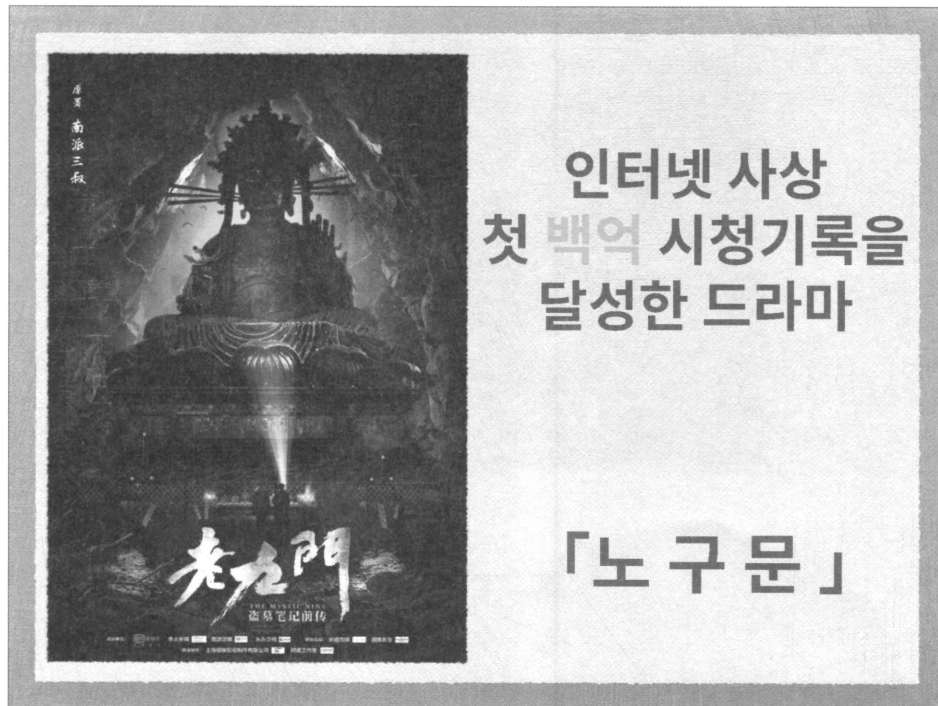


「暗黒者」

「집념사」



「도묘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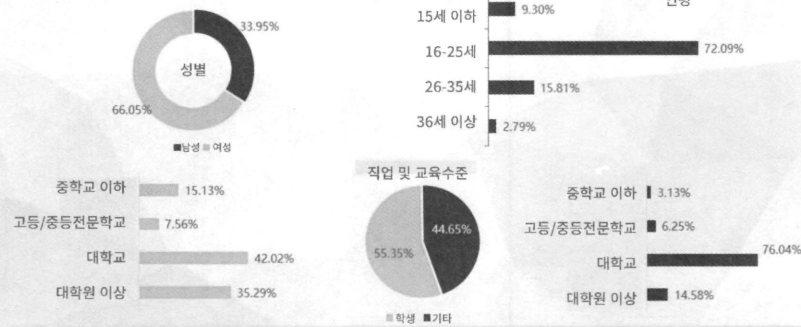


「노구문」

영상 댓글을 통한 소통



5.1 시청자 분석 및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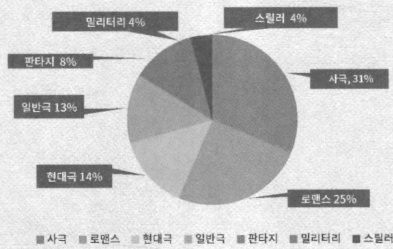


온라인 시청자는 여성이 주를 이루지만 남성 시청 역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90년대생이 온라인 시리즈의 제일 중요한 시청자 집단인 것에 비해, 45세 이상 집단은 온라인 시리즈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 전체 시청자 중 50% 이상이 학생 신분인데, 그 중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주를 이룬다. 중고등생들이 온라인 시리즈를 시청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한가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생이 아닌 집단 중 대학교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온라인 시리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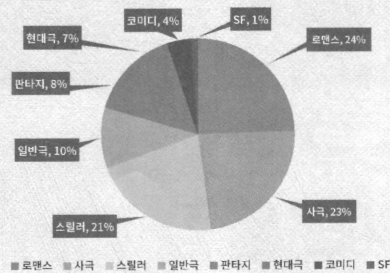
Smart 新传媒

시청 양상-성별 및 연령

2016-2018년 IP원작 시리즈 유형



2016-2018년 IP원작 인터넷 드라마 유형



시청 양상 - 장르

출처: 메트릭스리서치, 통계청 2016년1월~2018년12월27일

향밀침침신여상 트레일러



48



「노구문」 번외편 영화

PPL 광고



49



인터랙티브 드라마

인터랙티브 드라마 트레일러



爱奇艺出品



감사합니다



Writers Session 2 : 일본 작가

고사와 료타

해외로 진출한 나의 작품에 관하여

오늘은 제가 작업했던 작품들 중에서 해외에 진출한 작품 몇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리갈 하이』, 『데이트~사랑이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컨피던스 맨 JP』의 도입부를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리갈 하이』

『데이트~사랑이란 어떤 것일까~』

『컨피던스 맨 JP』

이 세 작품 모두 저와 후지TV가 함께 작업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신 작품이 2012년 방영된 연속극 『리갈 하이』입니다.

사카이 마코토 씨가 연기하는 뼈뺀 독설가 변호사와 아라가키 유이 씨가 연기하는 저돌적인 변호사가 서로 억지 논리를 펼치는 코미디입니다.

연속극을 집필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뚜렷한 개성을 가진 인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 사상 가장 성격 나쁜 주인공」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정의의 편, 약자의 편으로 표현되는 일이 많았던 변호사를, 돈만 주면 어떤 재판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억지 논리를 펼쳐 상대를 말로 이기는 재수없는 남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을 사카이 마코토 씨가 즐겁게 연기해 주셨습니다.

시청률은 뭐, 그저 그랬지만, 뜨거운 팬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시아 각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어, 한국에서는 리메이크 작품도 제작되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시청률만 신경 쓰던 저에게 있어, 한 걸음만 내딛으면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작품을 봐 주신다는 사실은 매우 짜릿한 경험이었고, 제 시야를 넓혀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트~사랑이란 어떤 것일까~』는 2015년에 방영된 러브 코미디입니다.

일본에서는 연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연애 드라마로 히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연애에 전혀 흥미가 없는 남녀가 억지로 연애하는 이야기를 써 보자고 생각해서 도전한 작품입니다.

목표는 역시 강한 개성을 가진 인물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과 쪽 두뇌를 가지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딱딱한 여성과, 소설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좋아해서 현실로부터 도망친 니트족 남성, 이 두 사람이 데이트를 거듭해가면서 연애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상하이에서 리메이크되었고,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성장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방영된 『컨피던스 맨 JP』, 소재는 콘 게임, 신용 사기꾼입니다.

나가사와 마사미 씨가 연기한 주인공 다코와 그 일당들이 매회 다양한 업계에 잠입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쁜 부자들을 속여 통쾌하게 돈을 뜯어냅니다.

강한 개성을 가진 인물로, 이 작품에서 목표로 한 것은 「드라마 사상 가장 제멋대로인 주인공」입니다. 법에도 상식에도 도덕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주인공, 그들을 보면서 숨막히는 현대의 생활에서 해방되어 조금이라도 상쾌한 기분을 느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작품에서 저는 후지TV의 협력을 얻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리갈 하이』, 『데이트』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자는 시도입니다. 이 작품은 해외에서 리메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각본 그대로를 원작으로 제공하여 어디까지나 각본을 바탕으로 그 나라의 컨피던스 맨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은 전세계의 제작자들이 국경을 넘어 뛰어난 각본을 찾아 헤맨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각본이란 감동적인 스토리, 개성적인 캐릭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이러한 각본을 탄생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각본가가 앞으로의 시대에 해야만 하는 일이고, 또 그 뛰어난 각본만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전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요?

현재 컨피던스 맨은 한국과 중국에서 컨피던스 맨 KR과 CN 제작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물론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나라만의 이런저런 사정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기꾼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은 없습니다.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는 일도 유감스럽지만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정치, 외교면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연계를 더 단단히 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메마른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지친 몸에 기운을 불어넣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웃게 합니다. 여기에 국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Writers Session 3: 한국 작가

유현미

드라마 'SKY캐슬' 기획에서 집필까지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의 주제가 '아시아 드라마, 더 넓은 세계로'란 말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하나 고민하다가 올해 제가 집필한 드라마 'SKY캐슬'의 기획에서 집필까지의 과정을 말씀 드리는 것도 주제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SKY캐슬'은 대학입시를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한국의 대학입시가 얼마나 치열한 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학생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 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저는 그저 잠시 가슴 아파했을 뿐, 입시를 소재로 드라마를 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입시'란 그저 골치 아픈 뉴스거리일 뿐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2010년 아들 녀석이 고3일 때 입시컨설턴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수능점수를 들고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들으러 '입시 컨설턴트'를 찾아가면 저들이 짜주는 플랜에 따라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학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정보력 없는 엄마 때문에 아이가 대학입시에 실패한 것만 같아 괴로웠던 마음은 아들이 재수, 삼수, 사수를 하면서 죄책감이 되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물수능, 불수능을 오가며 바뀌는 입시 정책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길 수차례, 울분과 죄책감 속에서 애간장이 타들어갔던 그 세월이 없었더라면... SKY캐슬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한 방송사로부터 2부작 설특집극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능을 소재로 한 드라마 '고맙다 아들이'를 집필했습니다. 다행히 반응이 좋아 '입시'를 소재로 한 미니시리즈를 써보라는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긴 이야기로 풀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작품을 쓸 때, 수험생 아들 옆에서 겪었던 마음고생이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책에서 읽은 한 구절이 입시 소재의 드라마를 쓸 용기를 넘어 제게 사명감마저 주었습니다.

입시를 치른 선배엄마들이 이제 막 아이의 성적관리에 뛰어들어 후배엄마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얘기해준다면 상황은 분명 달라질 텐데, 성공한 엄마들의 경험담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뿐 다수의 선배엄마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더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대학입시를 치른 선배엄마로서, 드라마 작가로서, 한 아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 가정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절실함으로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입시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고픈 부모의 욕망은 그 어떤 욕망보다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아주 생생한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 욕망에 사로잡혔던 세월을 보낸 학부모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가 2010년도에 만났던 입시컨설턴트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커진데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으로 불릴 만큼 학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큰 반향을 일으키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서울의대에 보내고야 말겠다는 욕망에 불타는 엄마 '한서진'이란 캐릭터와 그녀의 욕망을 불모삼아 그녀를 좌지우지할 악역, 입시코디네이터 김주영이란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한서진과 김주영의 대결을 그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나온 수재였던 김주영은 자신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최연소 교수가 됐다는 사실에 질투심이 폭발, 천재성을 보였던 자신의 딸을 더욱더 몰아붙여 9살에 조지워싱턴 대학까지 입학시켰던 엄마였습니다. 한마디로 딸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려 한 '학습매니저'였던 것이지요. 한서진 역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대학병원 의사와 결혼한 뒤, 원조 헬리콥터 맘인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딸을 서울의대에 합격시키려 했던 '학습매니저'였을 뿐입니다. 그런 두 여자를 통해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이 오롯이 자식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워 부모의 욕심을 채우려는 건 아닌지 묻고 싶었습니다.

드라마 ‘SKY캐슬’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주인공이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옆집 엄마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사교육자들의 상술에 휘말리지 않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엄마, 자식을 온전히 믿어주는 엄마야말로 비정상적인 입시 경쟁 속에서 자식을 굳건히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소년 심리상담가들이나 정신과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른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설령 부모가 아니라 편의점 아저씨든 슈퍼 아줌마든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저를 부모들의 각성과 성숙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진심이 통했는지 첫방송 1,7프로의 시청률로 시작한 ‘SKY캐슬’은 마지막방송 ‘23.8’프로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일주일예에 예닐곱 군데나 다니던 아이의 학원수를 줄이고 아이와 함께 노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엄마들의 댓글이 쏟아졌던 사실이었습니다. 제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SKY캐슬’이 좋은 성과를 얻은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 ‘한서진’의 캐릭터와 엄마와 아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교육의 폐해를 입시코디네이터 ‘김주영’이란 캐릭터로 적절히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서진에게는 광미향이라는 과거를, 김주영에게는 숨겨둔 딸 K를 설정함으로써 인물들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켰고 한서진의 딸 예서와 라이벌이었던 헤나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며 입시소재를 스릴러로 푼 것 또한 좋은 성과를 얻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기획단계 때부터 세일즈 포인트로 염두에 두었던 것이 블랙코미디였습니다. 입시라는 다소 딱딱하고 무거운 소재를 다루는데 코미디 요소가 있어야 만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판단했던 것이지요. 2014년에 방송된 제 드라마 ‘골드크로스’ 후반부에 잠시 블랙코미디를 시도했다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억이 저로 하여금 블랙코미디 장르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들과 전직 차장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들만이 모여 사는 스카이크슬에 난데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0.1프로 선택받은 자들만이 사는 곳이라 내부엔 CCTV조차 필요 없다는 스카이크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네 쌍의 부부의 자식들이 용의자로 주목됩니다. 교양과 품위로 무장한 그들이 어떻게 속내를 드러내는지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블랙코미디 덕분에 드라마 ‘SKY캐슬’은 ‘코믹 입시 스릴러’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모두 다 뜨거운 열연으로 캐릭터에 생동감을 더해주시는 연기자들과 제작에 열정을 쏟아주시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스태프들과 탁월한 연출력으로 ‘SKY캐슬’을 빛내주신 조현탁 감독님 덕분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SKY캐슬’을 집필 하면서 입시 소재의 드라마가 한국의 시청자들 뿐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의 아시아국가, 나아가 미국, 유럽에서 까지 공감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교육 관련 연구를 체계화한 세계적 석학 마크 브레이 홍콩대 석좌교수의 말처럼 과도한 사교육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구장에서 맨 앞줄의 관중이 일어서면 그 뒷줄 관중도 일어서고 그 다음 줄도 일어서고... 마침내 맨 뒷줄까지 일어서는 것처럼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물론 유럽에서조차 학부모의 불안을 마케팅 삼아 사교육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초대형 대학입시 비리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미국 워너 브라더스에서 드라마 ‘SKY캐슬’의 리메이크를 적극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혹여 드라마의 소재를 찾고 계신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입시나 사교육 관련 소재도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드라마의 위상이 더욱더 드높아지길 소망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